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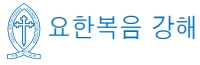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시험 받는 제자들 II

(요 6:60-65)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며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2.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를 영어성경에는 ‘The Spirit that gives life, life giver’ 라고 하며 ‘생명을 주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영과 육 중에서 영만 살리시고 육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라야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므로 그분을 육신으로 알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인간이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3년간이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먹고 동행했던 그들이 주님을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후 5:16).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시고, 조금 더 훌륭하시고,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도자로만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교제를 했는데 그것은 다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 조명을 해 주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있던 의심 많고 낙심에 찬 두 제자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걸어갈 때 그들 옆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 쉬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다고 했습니다(눅 24:31). 그들은 나중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

습니다(고전 12:3).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말은 성령을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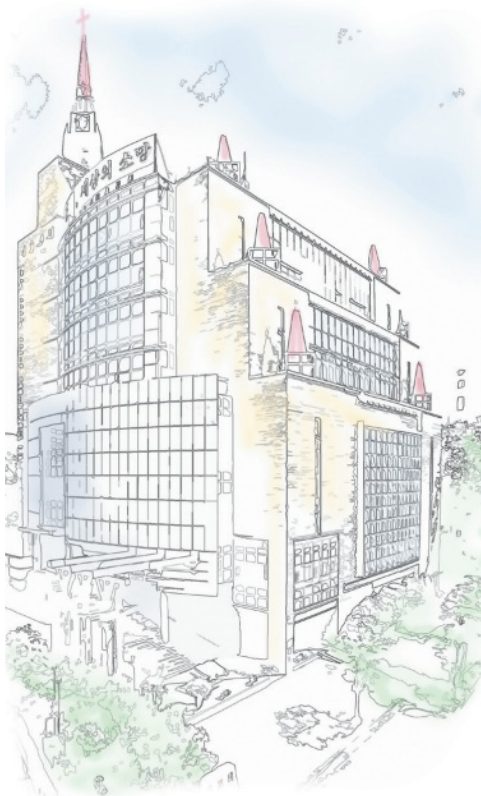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할 수 없으므로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눅 11:28).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내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초월적인 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면대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육체적이고 표면적인 것은 다 무익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물질을 아무리 바쳐도 물질 자체는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도 양적으로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육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익합니다.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말씀 안에서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3. 결론

그리스도의 말씀은 많이 읽고 들어서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는 실망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불리 먹은 자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실망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보고하는 일과 간구하는 일로 내게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이번 주는 6. 25전쟁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적도 있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 25전쟁으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광복을 맞이했었고 현재 우

리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민 모두가 안보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며 기도해야 할 때이다.

2021 홍해작전 승전을 향하여

특별새벽기도회 : 6.17(목) - 6.25(금) 새벽 5시 / 손달익 목사

2021 홍해작전이 이제 5일 남았다. 올해 홍해작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점에서 시작하여 힘차게 행군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5일도 전 교인이 새벽을 깨워 교회로 향하거나 예배 실황 중계로 모이기에 힘쓰

기를 바란다.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작전이다. 새벽기도회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와 교회, 그리고 개인 앞에 놓인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홍해를 건너기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새벽을 깨우고 홍해작전에 참석한 성도들 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열체크는 필수

사진 : 유은경 집사(편집부)

2021 홍해작전

반석위에 세운 교회



임승한 집사
(2021 홍해작전
재정분과장)

매해 의례 행해지는 의식 같은 홍해작전이라고 당연히 여겼는데 올해 홍해작전을 앞두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숨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지만 숨 쉴 수 없는 때가 오면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서울교회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성도들은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곳곳에는 그때의 상처들이 있고 빈자리들이 있고 서울교회를 바라보는 이웃 주변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과거에만 연연할 수는 없습니다. 사방이 온갖 적군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에 떨 때 위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서울교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테니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역할로 귀한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합심하여 전진하면 이전처럼 서울교회가 세상의 나침반 역할을 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개인의 홍해, 교회의 홍해, 그리고 국가의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 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 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최종희 권사)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최종희, 장상국)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한가형 김은호 유성혁 감동헌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호 심준규
허성강 장하랑 육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2021 올해 작전

첫째날 : 6월 17일(목)
말씀이 왕성하여
 (행 6:1-7)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말씀 증거의 능력과 열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섬김이 나타났습니다 (행 4:31-35).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급격한 성장에 따른 반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와 혼란을 극복한 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7절)고 했습니다.

1. 기도와 말씀 사역의 집중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사건의 혼란 중에 일반 업무를 감당할 집사들을 선택하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3-4절) 문제가 어려워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일은 근본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질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본질과 원칙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2. 조화와 일치의 노력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며 교회는 한 몸, 한 공동체인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엡 4:4-6). 한 몸이라는 것은 일치되고 조화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일치는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는 본질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은 구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결코 획일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인 복음에 대하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다양성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3. 평신도들의 헌신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질 수 있었던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평신도들의 눈부신 헌신이었습니다. 행 6,7장에는 스테반이 등장하고, 8장에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선교 사역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사역의 특징은 자기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찾는 우상이 자기 안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그들의 순교와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도약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를 끝없이 시도했고 조화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며 자기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날 : 6월 18일(금)
잃어버린 첫사랑
 (계 2:1-7)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령한 첫 인상, 첫 감동, 첫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복되면 감동이 식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마음속의 감동이 식어지는 것을 변질이라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깨우쳐서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도 하십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주의 수도였고, 정치, 경제, 교통, 문화 등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에베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 거점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서 3년간(AD 54-59년 사이) 머무르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자를 양육하였고, 에베소 교회를 근거지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 칭찬과 책망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먼저 세 가지의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잘 안다고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이 있을 후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이단들과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이들이 온정주의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후에 교회 안에서 일정한 관행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들이 식어져 첫사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 회개의 촉구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5절). 행위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말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사랑의 행위를 회복할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4. 이기는 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냉정해져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균형 있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천국시민 양성 - 신앙강좌반

우리말 성경의 역사 7

- 해방 후 성경번역 작업 -



1967년 <신약전서 새번역> 출간



1977년 <공동번역 성서> 출간



좌) 천주교 <성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위 개신교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현대인의 성경> 외 <쉬운성경> 등 현재 약 30여 종의 개인 번역이 출간되어 있다

1. <신약전서 새번역>

지금까지 우리말 성경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개역성경>까지는 주로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국의 성경인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여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 등을 참고하며 번역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신약전서 새번역>은 처음으로 신약성경 전체가 헬라어 원문에 기초하여 한국 학자들의 힘만으로 번역되었다. 쉬운 현대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젊은이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용이했다. 또한, 기존의 세로쓰기가 아닌 가로쓰기로, 두 단에서 한 단으로, 단락(paragraph)의 방식을 택하였기에 읽기가 편했다. 그러나 서신서에서는 경어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다는 평이 있었다. 그외에 특별한 점은 성경 본문의 단락에 따라 소제목을 붙인 것이다. 소제목은 주로 The Greek New Testament(1966년 판)를 참조하였다. <신약전서 새번역>은 1960년에 작업을 착수하였고 1967년에 출간했다.

2. <공동번역 성서>

1967년 <신약전서 새번역>을 출간한 대한성서공회는 이어서 구약성경 작업을 계획하던 중 한국 천주교로부터 성경을 함께 번역하자는 제의를 받는다. 이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된 "개신교와 관계를 개선하자"를 한국 천주교가 실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한국 천주교는 자체의 우리말 성경이 없었다. 그래서 개신교가 발행한 <개역성경>을 쓰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1968년 1월 신교, 구교 학자들이 중심이 된 공동번역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곧 번역 작업에 돌입하였다. 결국 1977년에 <공동번역 성서>를 출간하게 되었는데, 한국 가톨릭 측에서는 자신들이 참여한 최초의 우리말 성경이었다. 그러나 출간되자마자 개신교에서는 졸속 번역이라는 비판 제기과 함께 사용을 거부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였다. 우선 의역이 지나쳐서 성경 원문과 동떨어진 번역이 많았다. 또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었다. 이것은 천주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데, 천주교는 1964년까지 하나님을 천주(天主)로 표기해 왔으면서도 하느님으로 표기할 것을 고집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고유명사를 개역성경과 달리 해서 혼란을 초래했고(예: 마가-)마르코, 바울-)바울로, 여리고-)예리코), 구약에 7권의 외경을 수록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천주교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2005년 <성경>을 출간하였다. 이 판본은 대한성서공회가 아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권한에 기초해 있다.

3. <현대인의 성경>

미국 일리노이 주에 본부를 둔 복음주의연맹선교회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3년부터 한국 선교를 시작했다. 주로 문서, 방송, 사회사업으로 선교를 추진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생명의 말씀사, 극동방송국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선교회의 한국 선교지부가 주도해서 성경번역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김의환, 지명관, 한제호, 한철하 등 주로 합동 측 인사들이 참여했다. 1970년에 <젊은이여 참 삶을, 부제: 현대어로 의역된 지성인을 위한 로마서>라는 로마서 번역을 출간했다. 표지에는 젊은 남녀의 사진이 있고, 본문에는 현대적인 감각의 그림들을 수록했는데 출간되자마자 심한 비판과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이 로마서 번역은 헬라어 원문을 대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인 <The Living Bible>을 번역한 것으로 번역 성경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작업은 계속되었고 1977년에 <신약 현대인의 성경>, 1985년에는 신구약 전체인 <현대인의 성경>이 출간되었다. 이 성경은 공식위원회의 번역이 아닌 사적인 번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다. 현재에는 아가페출판사에서 출간한 <쉬운성경>을 비롯해서 약 30여 종의 개인 번역이 출간되어 있다. 요약 정리 : 김애리 집사(편집부)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21일	월	시 69-72		딤후 1-3, 몬, 히 1-6	
6월22일	화	시 73-77		히 7-13	
6월23일	수	시 78-79		약 1-5	
6월24일	목	시 80-84		벤전 1-5, 베후 1-3	
6월25일	금	시 85-89		요일 1-5, 요아, 요삼, 유	
6월26일	토	시 90-95		계 1-10	
6월27일	주일	시 96-102		계 11-22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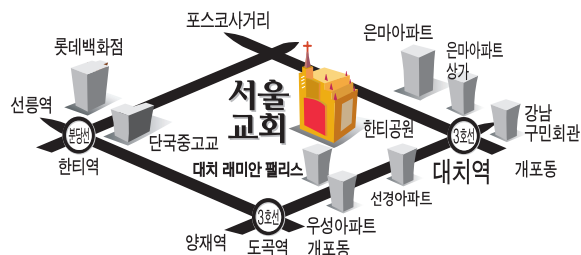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2021 흥해작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기도에 힘쓰며, 임직자 훈련을 통하여 잘 준비된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 호국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